

세계 속의 한국의 좌표와 제조기업의 경영실적

Korea Economic Positioning in the World & Manufacturing Industry Business Status



글 / 辛 容 伯

(Shin, Yong Back)

공장관리기술사, 공학박사,
산업자원부 KS심의위원 겸 중소기업청
싱글PPM품질인증심사위원,
아주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 교수.
E-mail: ybshin@ajou.ac.kr

1. 세계 속의 우리 경제좌표와 국가경쟁력 현황

최근 2002년도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GDP)은 4,766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GNI)은 10,013 달러로 집계(한은: 2003. 3. 21. 발표)하였으며, 지난 2001년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9천 달러로서 세계 54위(도시국가 제외 33위)와 국내 총생산(GDP)은 4,222억 달러로 세계 13위의 경제 규모로서 지난 '94년도(8천9백98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분석 발표하였다(한은: 2002. 5. 27).

지난 '97년도 말 외환위기로 IMF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경제의 초긴축 운영으로 '98년도 IMF 경제난 시작 년도에서는 국내 총생산(경상 GDP 기준) 3,121억 달러로 세계 17위, 1인당 국민소득은 6,744 달러로 종전 '91년도 수준으로 퇴보하여 세계 42위까지 추락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총 외채 규모는 '97년도 말 기준 1,592억 달러, '99년도 말 1,371억 달러, 2000년도 말 1,317억 달러, 2001년도 말 1,188억 달러, 2002년도말 현재 총 외채는 1,31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가, 또다시 2003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 외채 1,37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이 중 단기

Recently Korean GNI of a person national income is estimated 10,013 dollars of 2002 year. And its ranking are 54th in the world that 9,000 dollars of 2001 year.

Korean total nation competitiveness is 27th positioning in the world of '2002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 IMD: 2002. 4. And Korea manufacturing industry is recovered by that business results are rising more than good result in 2000 year. The business results status it is that ordinary income to sales 4.7% for sales amount ₩ 1,000, stockholder's equality to total assets 42.5% and liabilities ratio is 135.4% under 200% advised standard.

외채는 527억 달러로 그 비중도 40.6%로서 지난 2003년 1월(38.3%), 2월(39.3%)에 이어 연속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재경부: 2003. 5. 9).

그리고 2001년도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1,028억 2천1백만 달러(한은: 2001. 12)로서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다음의 세계 5위의 외환보유국으로 부상하였고, 드디어 "월드컵축구 4강" 달성에 이어, 우리 한국은 2002년 6월말 현재 1,124억 3천8백만 달러(한은: 2002. 7. 3)로서 홍콩을 앞지른 "외환보유액 세계 4위국"에 진입하였고, 2000년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1,214억 1천3백만 달러로 증가(한은: 2003. 4. 15. 발표)되었으며, 2003년 2월말 현재 최고치인 1,239억 8천8백만 달러에서 감소되어 지난 4월 15일 현재 1,224억 3천5백 달러로 다소 줄고 있다.

한편 2002년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총 대외채권은 1,853억 달러로서 순 채권은 약 +543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2001년도 기준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통계청: 2002. 11. 11)"에서 세계 속의 우리 한국의 좌표는 선박 건조량은 세계 2위(2000년 1위), 조강 생산량 6위(2000년 4위),

인터넷 이용자수 5위(2000년 5위), 자동차 생산량 5위(2000년 5위), 전자제품 생산액 3위, 국내 총생산은 4,222억 달러로 13위(2000-10위), 수출 12위, 수입 14위였고, OECD회원국 중 노동생산성 23위, 경제성장률은 3%로서 4위, 실업률은 3.7%로서 7위였다. 반면 전년도 통계에서 교통사고율 세계 1위, 위스키 독주 1인당 소비량 1위, 인구밀도 1위, 남녀출생 구성비 중 남자 출생 수 2위 등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2002년도 세계경쟁력 연감(스위스 IMD-2002, 4, 26)』에 의하여 평가대상국 49개국(OECD 및 신흥공업국)중 우리 한국의 종합 국가경쟁력 평가순위는 지난 '95년도 26위에서, '96년도 27위, '97년도 30위, '98년도 36위, '99년도 41위로 4년간 연속하락 하다가 2000년도에 진입하여 IMF외환위기 전 수준인 28위로 회복, 2001년도에도 28위로 재평가되었다가 2002년도에는 한 단계 올라선 27위가 되었다.

그리고, 반 부패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에서 『2002년 뇌물공여 지수 국가순위 발표(2002. 5. 14)』에 의하면, 주요 21개 수출국 중 우리 한국은 4위(최초'99년도 2위 평가)의 부패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또 한편 국가 청렴도 수준인 『2002년 국가별 부패지수 순위발표 (2002. 8. 28-베를린)』에 의하면 세계 주요 102개국 중 우리 한국은 4.5/10점으로 40위(2001년 42위)로 5.0 이하인 “부패권 국가”로 평가 분류되고 있다.

한편 우리 “한국의 회사원들이 직장과 일에 대해 느끼는 애착도”가 세계 최저 수준(세계 33개 조사 대상국가 중 1위-이스라엘, 2위-네덜란드, 3위-뉴질랜드, 4위-멕시코, 15위-미국, 16위-영국, 24위-대만, 32위-일본, 그리고 꼴찌 33위-한국. TNS: 2002. 11. 21. 발표)으로 조사 분석되었고, 이 조사에서 한국 회사원들은 직장에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명중 3명에 불과하고,

일에 대해서는 36%, 직장에 대해서는 35%만이 애정을 느낄 뿐 그 절반이 넘는 55%가 일과 직장의 모두에 애정이 없다고 응답하여 세계 평균(35%)과 큰 격차를 보였으며, “직종별 애착도”는 공공기관이 53%로서 가장 높았고 “제조업”이 불과 13%로서 가장 낮았다.

2. 국내 제조기업의 경영실적현황

최근 국내 제조기업의 경영실적 현황은 '95년도 까지 상승국면에서 그 이후 경영 악화가 가중되어 다음 <표 1>과 같이 연도별 경영실적 분석현황을 재정리 편집하였다.

<표 1> 국내 제조기업의 연도별 경영실적 현황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매출액(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금융비용(원)	56	58	64	90	69	47	42	26
매출액경상이익(원)	36.0	9.9	△3.4	△18.4	16.8	12.9	3.5	47
부채비율(%)	286.8	317.1	396.3	303.0	214.7	210.6	182.2	135.4
자기자본비율(%)	25.9	24.0	20.2	24.8	31.8	32.2	35.4	42.5
매출액증가율(%)	20.4	10.3	11.0	0.7	8.0	15.2	1.7	8.3

① 95~2001년도 기업경영분석(한은 당해연도 자료)
 ② 2002년 기업경영분석(한은 2003. 5. 14)

즉, 국내 제조기업 자기자본 비율은 '98년도 24.8%이었던 것이 구조조정으로 1999년도부터 처음으로 30%수준을 상회하였고, 2002년도에 진입하여 처음으로 자기자본 비율 40%선을 상회하여 2002년도에는 사상 최고수준인 42.5%가 되었고 부채비율은 최저치인 135.4%가 되었다.(한은 : 2003. 5. 14)

'95년도 이래로 IMF경제위기 시작 년도('98)까지 우리나라 제조기업 체질의 허약성과 매출액 증가율의 감소 및 금융비용 부담률이 5.5%에서 9.0%로 가중되어 채산성 악화로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3.6%에서 '98년도 ▲1.84%로 급락하였다가 '99년도부터 저금리 정책 등으로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다시 1.7%로 전년도보다 약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2001년에 들어와 국내 제조기업들은 당시 사상 최저의 저금리 덕분에 금융비용 부

담의 경감 등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이었고, 2002년도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4.7%로서 상승국면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액 증가율(8.3%)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2003년 3월 19일 미국의 공격에 의한 이라크 전쟁(3/19~5/1. 미국 부시대통령 종전선언)과 북한의 핵 보유 시인 관련(2003.04.27 -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평양) 및 공포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병 전파로 중국·동남아시아의 수출입 차질과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시중 자금난이 악화되고 있으며, 관련한 세계 경제의 긴장고조에 따른 여파로 내수 위축 등 2003년도 국내 경제가 대부분의 업종에서 긴장·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지식경영시대에 기술경영관리자의 자기혁신 포인트

이제부터 기업의 자산 중 가치 있는 것은 지식이다. 고로 21세기 기업에서 “지식의 창조와 공유”는 기업성공의 주요 요인이다, 때문에 지식경영은 환경변화의 산물이며, 시대흐름에 따른 주위의 거대한 변화에 대한 조직적인 반응인 것이다. 21세기 지식사회에서 자기계발로 새로운 지식을 함양하고, 이의 가치 있는 활용으로 자기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인류의 역사는 생산기술활동으로 풍요로워졌고, 품질 및 생산성향상과 새로운 가치창조로 발전되어 왔다.

급변하는 시대상황에서도 『기술경영관리자의 자세』는 풍요로운 정신과 고매한 인격 및 훌륭한 직무능력의 소유자로서 국가 및 산업사회에 품질 및 생산성향상과 가치창조로서 공헌하여야 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사상과 철학을 가진 직업인으로서의 말은 “기술업무수행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2002년 제조업 기술개발 현황조사(산

자부·산업연구원-2002. 10. 30)”발표에 의하면 국내 제조업계의 평균기술수준은 선진국의 80% 수준으로서, 중화학공업 80.0%, 경공업 80.1%, 정보통신산업 83.6%, 대기업 82.1%, 중소기업 78.6%, 반도체 83%, 전자 84.8%, 자동차 75%, 기계 79%의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아울러 취약한 기술분야는 소재관련기술 33%, 제품설계기술 29%, 부품관련기술 12%수준 등으로 분석되었다.

한때 세계로부터 칭송 받아온 “새마을운동”과 함께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 세계 1위”를 기록한 한국인의 근면성이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빛을 잃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으로서 커다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오늘의 우리 기업현황으로 국내 1백대 기업 CEO의 재임기간이 평균 2.4년(LG경제연구원 “CEO들의 서바이벌게임 보고서”: 2002. 11. 27)으로 미국 부즈앨런 해밀턴社(2001년 말 기준)의 조사보고에서 세계 주요기업 CEO들의 평균재임기간 7.3년, 미국은 6.4년, 일본은 4.6년인데 비하여 우리 한국의 CEO들의 재임기간의 단명(短命)과 회사원들의 직장과 일에 대한 낮은 애착도(愛着度)와 우수 인력의 이공계 대학 진학기피 및 제조업의 지속적인 기능인력 확보난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국가 장래의 문제점 내재를 시사하고 있는바, 이들의 범 산업적인 조처나 의식개혁과 가치관 재정립의 개선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장래가 크게 걱정된다.

지식경영시대의 기술경영관리자는 새로운 지식의 함양과 이의 가치 있는 활용으로 자기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특히 기술경영관리자로서 “창조적 자세”는 긍정적 사고방식, 인간사고의 맹점 배제, 문제의식과 개선의식, 연상력과 창조성개발 등과 자기 기술영역의 새로운 학습 등으로 자기계발을 하는 지속적이고도 습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원고 접수일 2002. 12. 12 / 최근자료보완 2003. 5. 22)